



의료자원 관리의 선진화

한달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사회가 의료자원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의 관계는 단선적이거나 단순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의료자원을 공급한 만큼 의료서비스가 생산되고, 의료서비스의 양에 비례해서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체계의 구조적 속성, 건강정책,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 투입 의료자원이 의료서비스로 전환되어 건강 효과로 나타나기까지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차이가 있으며, 건강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국민의료비나 여타 투입의 증가 없이도 보건의료부문의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평균수명을 3년은 연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실증적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은 의료서비스 이외에도 생활양식 요인들, 교육수준, 사회문화적 여건, 환경오염, 소득수준 등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위한 자원과 비용의 지나친 증대로 인하여 여타 건강 결정요인들이 부실해진다면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건강관리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서비스의 확대 등과 더불어 국민의료비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고, 인구의 고령화를 비롯한 상황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국민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건강정책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의 하나로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특히 진료서비스 비용이 국민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의료서비스 수급을 적절히 조절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국민의료비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는 전략으로 매우 중요하다. 의료자원이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핵심적 투입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료자원 정책과 관리는 의료수요의 충족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향상을 기하되, 의료부문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료비를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료자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명제의 하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자원 자체가 아니고, 의료자원의 투입으로 생산되는 의료서비스이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의한 건강 향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지만 매우 중요한 논지를 담고 있다. 의료자원 관리는 양적 수급 균형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며, 자원의 종류, 종류별 기능과 구성, 품질, 지역 간 분포 등이 어떠해야 의료서비스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의 틀을 토대로 의료자원 상황을 계속해서 분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설계, 운영함으로써 생산되는 정보를 근거로 정책과 추진수단을 개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는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의 기반이 되겠다.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기능하는데 필요한 투입요소에는 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등의 소모품, 기술적 지식, 관리정보, 재원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서 주요 실물자원으로서 투자 수요가 크고, 단기간에 공급을 증감하기가 어려우며, 일단 투입되면 유지 또는 운영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가 의료자원 정책과 관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HIRA 정책동향」이 의료자원 관리의 선진화라는 주제 아래 의료인력, 의료장비, 병상자원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일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편집기획이라고 생각된다. 📌